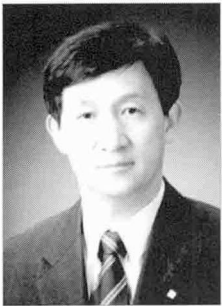


안전한 닭고기 이미지로 수출산업 전환을 기대하며...



이 상 희 전무
이화팜텍(주)

중국에서 불어닥친 멜라민 강풍이 황사보다 훨씬 무섭게 몰아쳤다. 도대체 어느 제품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는 중국인의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현대 문명이 되는
종이와 화약, 나침반,

인쇄술을 발명한 중국. 세계의 중심 국가로 자처하려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작금에 일으킨 일은 올림픽의 성공을 일거에 까먹고도 남는 큰 실수일 것이다.

한 사람의 고객이 심한 불평을 가지게 되면 250명에게 영향을 준다는 조지 지라드의 법칙을 거론한다면 실추된 중국산 이미지가 고급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세계는 통신과 인터넷, 각종 정보 매체로 하나의 시장, 한 국가와 같아졌다. 더구나 국가 간에 FTA가 더 정착되고 자유무역주의가 자리 잡으면 완전히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므로 우수한 식품, 좋은 이미지를 가진 국가와 업체만이 존재할 것이다.

이미 백색육과 적색육의 품질 경쟁은 세계적으로는 판가름이 난 것과 같다. 또한 가격 대비 영양과 맛이 다양한 요리와 선호하는 국가와 인종, 종교를 봐서도 닭고기는 너무나 편하고 우수한 식재료임에 틀림없다.

음료수의 대명사 콜라, 차의 대명사인 커피, 영양음료인 우유, 각종 과일류를 보면 이젠 전 세계 시장은 철저히 세계화(Globalization)되어서 어디에서도 확실한 품질 이미지만 정착시킬 수 있다면 시간 싸움이지 성공 확률은 높다고 생각한다.

요즘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역으로 보면 우리가 좋은 닭고기 제품을 문화적 이미지로 만들어 낸다면 성공할 수 있다.

김치가 세계인에게 건강식으로 보편화되고, 비빔밥이 맛과 영양과 다양성에서 성공하듯 우리만의 닭고기 요리를 만들 때가 이젠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살펴보자.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불안한 시각이나 소비감소도 이젠 많이 불식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보통 비싸도 국산이 더 좋은 것이란 인식이 많아진 탓이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제품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

확실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식품으로서의 닭고기 인식은 무엇일까?

우선 안전하다는 공감대와 그 과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계육협회는 금년 한해도 꾸준히 월간 닭고기를 통하여 닭고기가 어떻게 신선한 식품으로 변하는지를 심층 취재하고 홍보해 왔다.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알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 왔다.

이번에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적인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닭고기의 이미지가 가미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마치 한류의 예술성에 힘입어 아시아와 중동 국가에까지 우리 문화가 우수하고 정중한 것임을 심어 온 것처럼 이번 기회에 미국 내 한인을 중심으로 우리 닭고기가 맛있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식품이란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하길 기대해 본다.

태권도와 양궁으로 대별되는 최강의 이미지도 접목된다면 좋을 것이고, 인삼과 산삼의 효능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성공이 유럽이나 다른 국가, 특히 닭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도 많이 수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친환경 축산물로 대별되는 고급 이미지, 안전한 이미지를 위해 유럽에서는 이미 정착된 무항생제 개념의 제품도 당연히 더 발전되고 정착되길 바란다.

단순한 휴약기간의 사료가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볼 때 천연 웰빙 성장 물질을 항생제에 대체해야 할 것이다. 천연웰빙 성장 물질은 이미 전 세계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특히 육질개선과 면역력이 증가하여 육성률도 좋아진다고 한다.

좋은 닭고기를 생산하기까지 우수한 품종의 병아리 생산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건강하고 높은 생산성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HACCP 개념에 의거한 시설관리와 방역관리가 수준 높게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미 대량 사육이 대세화된 지금 육질개선을 위한 설비 개발도 가속화 되어야 하며, 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산학합동 발전을 위해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영양 수준의 완벽한 사료기술이 접목되고 질병 콘트롤이 보장될 때 비로소 생산성은 개선된다고 본다.

안전하고 맛있는 닭고기 못지 않게 육질이 좋아지고 육성률이 향상되어 사육농가나 계열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과학에 종사하는 우리가 있는 한 우리 닭고기 산업도 장차 세계로 눈을 돌려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미국으로 진출하는 선두에 선 회사들의 건투와 행운을 빈다. 